

‘기업하기 좋은 전남’ 팔 걸었다

여수산단 2025년까지 14개 기업 9조대 대규모 투자 공업용수 확충·안전인프라·산업용지 확보 등 주력 전남도, 오늘 여수서 현장간담회…국고지원 등 논의

전남도가 ‘기업하기 좋은 전남’ 만들기에 팔을 걷었다.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여수산단의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공업용수 확충과 통합안전체계 구축, 신규 산업용지 확보 등 투자 애로사항 해결에 행정력을 결집한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299개 기업이

입주, 가동률 92%인 여수산단은 국내 정유 정제량의 27%, 에틸렌 생산능력의 47%를 차지하는 국내 최대 종합석유화학단지다. 지난해 말 기준 산단 생산액은 울산·미포 117조원에 이르는 83조 6,000억원으로 국내 2위를 기록하고 있고, 수출액 311억불, 고용인원 2만 3,363명에 이른다.

특히 오는 2025년까지 GS칼텍스, LG화학, 롯데케미칼, 현대에너지 등 14개 기업에서 9조원대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는 등 전남 경제의 근간으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적기에 이행하는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과제도 적잖다.

주요업계계통 원수 추가와 광양공급시설(1~3단계)이 한계에 직면한 공업용수 확보가 대표적이다. 여수산단의 물수요는 2021년까지 1일 12만t이 추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14개 기업의 투자가 이뤄지는 2025년에는 1일 14만t에 예비·사과대비용 11만t 등 25만t

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전남도는 오는 2022년까지 사업비 5,085억원(국비 1,707억원, 지방비 51억원, 민자 3,327억원)을 들여 공업용수 시설개선, 하수 재이용, 광양항 4단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2,672억원이 소요되는 한국수자원공사 노후관 개량·보강공사를 통해 1일 10만t을 확보하고, 여수시 하수 재이용사업으로 5만t을 추가한다는 구상이다.

또 현재 추진 중인 환경부 ‘2035 광역수도정비기본계획’에 광양 4단계 공업용수도 사업(1일 10~20만t)을 반영하는 등 장기 필요 수량에 대처한다는 방

침이다.

끊이지 않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2023년까지 통합안전체계를 구축한다. 여수산단은 조성 44년이 경과하면서 안전사고도 빈발, 지난 2017년에만 사망자 11명에 부상자 91명이 발생했다. 303억원이 투입되는 통합안전체계 구축은 안전관리 고도화를 위한 1단계와 재난대응 통합인프라 구축이 골자인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현재 1·2단계 사업을 위한 올해 국비 34억원이 확보됐고, 사업전담 기관 지정과 운영관리 비용 부담 등에 대한 논의를 산업부와 진행 중이다.

발등의 불인 신규 산업용지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여수산단의 산업용지는 2,282만㎡이며, 이중 2,274만㎡가 분양돼 분양률 99%를 기록하고 있다. 당장 GS칼텍스 등 8개사가 110만㎡ 규모의 신규 투자를 희망하고 있고, 장치

산업의 특성상 기존공장과 연계한 개발부지 확보도 필요한 상황이다. 전남도는 부족한 산업용지 확보를 위해 광양항 제3투기장 항만개발사업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이달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2029년까지 4,330만㎡ 규모에 사업비 3,394억원이 투입되며, 2024년 1단계 분양이 목표다.

이밖에 여수 제2석유화학부두 건설과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등도 설계기간 단축과 예비타당성 조사 조기완료에 행정력을 모으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이 같은 현안 해결을 위해 11일 오후 GS칼텍스 여수공장에서 윤병태 정부부지사, 국회의원, 도의원, 기관 및 기업인 등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산단 투자기업 견의사항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를 갖는다. /정근산기자



(사)한국사료협회는 10일 서울 서초동 한 식당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이개호 장관을 초청 ‘사료업계 간담회’를 열고 사료지원자금 금리인하 등을 건의했다.

“사료지원자금 금리 2%로 인하해야”

조충훈 사료협회장 이개호 장관에게 건의

(사)한국사료협회(회장 조충훈)는 10일 서울 서초동 한 식당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이개호 장관을 초청해 사료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초청 사료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사료협회 조충훈 회장을 비롯한 사료업계 대표자 20여명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 축산환경자원과장이 참석했으며, 조충훈 회장은 다음과 같은 건의 사항을 이개호 장관에게 전달했다.

조 회장은 사료원료 구매 및 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료산업종합지원 자금의 금리를 현행 3%에서 2% 이하로 인하

하고 예산은 현행 500억원대에서 2,000억원대 이상으로 증액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광주·전남지역 펫사료 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규제 개선(원료사용 제한 완화) 및 광주·전남지역 펫사료 업체에서 제조한 펫사료의 해외 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상대국의 검역조건 완화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개호 장관은 “광주·전남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충훈 회장의 충언에 충분히 공감했다”며 “건의 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시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강병은 기자

“1인 가구 지원 사회 안전망 구축해야”

임미란 광주시의원 주권 ‘청년여성 지원’ 토론회

광주시의회와 광주여성재단이 지난 9일 시의회 5층 예결위위원회 회의실에서 ‘광주시 청년여성 1인 가구 지원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시의회 임미란 부의장(남구 3)이 좌장을 맡고 광주여성재단 노채영 연구실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또 박주희 광주여성재단 연구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김광관 광주시의원, 장세레나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전 대표, 문정은 광주청년센터 더숲 센터장, 김미리내 광주여성민우회 활동가, 임영희 여성가족정책관실 가족복지담당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는 광주여성재단의 정책연구를 기반으로 ‘광주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여성의 주거 빈곤 뿐만 아니라 사회 안전망, 고용복지 등 다층적인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주희 연구원은 ‘광주지역 청년여성 1인 가구 주거안정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광관 의원은 ‘1인 가구에 대한 종합적 설계의 필요성’, 장세레나 전 대표는 ‘청년여성 1인 가구 주거안정 실태’, 문정은



센터장은 ‘광주 청년 1인 가구를 통한 주거권 향상’, 김미리내 활동가는 ‘1들의연대, 나와 그녀의 다른 미래를 상상하며’, 임영희 계장은 ‘광주시 주거 지원 현황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임미란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광주지역 여성, 특히 여성 1인 가구, 청년 1인가구가 처해 있는 주거 빈곤, 소외, 안전문제 등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발제와 토론 내용을 조례로 제정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광주시, 치매 극복 기술개발 앞장

조선대에 ‘한국뇌연구원 협력연구단’ 개소

광주시가 치매극복을 위한 기술 개발에 팔을 걷어붙였다.

광주시는 10일 오전 조선대학교 의대 한마음홀에서 국가 치매 원인규명, 조기예측 및 치료기술 개발을 위한 ‘한국뇌연구원 협력연구단’을 개소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한국뇌연구원, 조선대 치매국책연구단과 공동으로 치매극복기술개발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한국뇌연구원 광주협력연구사업은 5년 간 총 98억원(국비 75억, 시비 15억, 민자 8억원)을 투입해 추진된다.

특히 조선대 치매국책연구단의 치매연구성과와 축적된 치매코호트 빅데이터를 활용해 치매 원인 규명과 조기예

측과 치료기술을 연구하게 된다. 전남대학교병원, 광주과학기술원, 동신대 등이 이번 연구사업에 참여한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치매 고위험군 선별 및 장기 추적연구를 통해 ATN(아밀로이드 베타(A), 타우단백(T), 신경퇴행(N)) 바이오마커 기반 치매 분류체계에 따른 생물학적 변화 표준화 ▲치매 전주기 인체 유래물 대상 다중 오믹스 DB 구축을 통한 신개념 바이오마커 확립 ▲치매 환자의 혈액, 뇌척수액 단백질 네트워크 종단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신경회로의 퇴행과 뇌기능 손상과 관련된 분자 네트워크를 규명 ▲치매 전주기 바이오마커 개발 및 개방형 다중 바이오·의료 통합 DB 구축 등이다. /황애란 기자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탄력 문광부 공모 선정 국비 4억 확보

광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19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사업’에 선정돼 국비 4억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한 광주시, 인천시, 고양시 등을 대상으로 발표심사, 현장실사 등을 거쳐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는 3개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시는 ‘김대중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사업은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진흥계획 수립 내용 등을 반영 ▲국제회의의 관련업계 및 집적시설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MICE아카데미 운영 등의 내용으로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 /황애란 기자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복위 45도 이상
혹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꼭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